

“젊은이들 글로벌한 사고가 미래의 해답”

동서대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받은 미즈타 일본 조사이대학 이사장



“젊은이들의 글로벌한 사고에서 미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전 지구적 사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자들의 책임입니다.”

일본 학교법인 조사이 대학의 미즈타 노리코(水田宗子·73) 이사장은 미래 사회의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일본 사이타마 현에 위치한 조사이 대학과 지바 현의 조사이 국제대학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조사이 대학을 25년 동안 이끌었다. 일찍이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교육의 국제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대한 공로로 29일 동서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즈타 이사장의 국제화 철학은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 등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그녀는 “당시 미국이 세계의 유학생들을 받아 교육시킨 것이 지금의 ‘팍스 아메리카’를 있게 한 원동

력이 됐다”며 “최근 들어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 세계인들은 환경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일본 페미니즘 비평의 선구자로, 일본 여성학회 창설을 주도했으며 현재 세계여성학장회의 아시아지구 이사를 맡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여성학 기초와 페미니즘 비평론을 가르치며 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미즈타 이사장은 “조사이 대학에는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성학 연구소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 권익을 위한 제도가 부족한 나라가 아직 많으며, 제도가 마련된 국가라도 사회 문화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젊은 여성들이 ‘큰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는 사회 편견과 맞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문화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겨울 연가’를 고전 비극과 여성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조사이대학과 동서대의 공동 영화제작 프로젝트를 제의하고, 한국 내에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현상인 ‘일본류’와 한류의 비교 분석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